黃耆제 투여로 득효한 아토피피부염 환자 1례 보고

전상규[1#] · 이남정[2*] · 공준호[3]
경기 군포시 산본2동 1061-1 사암아침한의원[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보건소[2], 강원도 영월군 북면마차2리 보건지소[3]

A Clinical Report of Atopic Dermatitis

Sang-Kyu Jeon[1#] · Nam-Jung Lee[2*] · Joon-Ho Kong[3]
Saam-achim Acupunture & Herbal Clinical, 1061-1st, Sanbon-dong, Gunpo-si, Gyeonggi-do, Korea[1]
Jochiwon Health center, 129-1, Kyo-Li, Jochiwon-eup, Yeongi-gun, Chungchungnamdo, Korea[2]
Macha 2-Li Health center, Buk-myeon, Youngwal-gun, Gangwon-do, Korea[3]

Abstract

Objective : We considered Astragali Radix(黃耆) can be used to cure serious atopic dermatitis. so we treated this patient with prescriptions contained Astragali Radix(黃耆). By this case, we got effective results and report this case and index of choice Astragali Radix(黃耆)

Method : After treatment with prescription contained Astragali Radix(黃耆), we observe the changes and analyze results.

Results :

1. Atopic dermatitis can be cured with Astragali Radix's efficiency on Sanghanron(傷寒論)
2. We considered Astragali Radix(黃耆) can be used when Chronic damage to the nasal mucosa is appeared by rhinoscopy and Sneezing, runny nose that lasts all year round is shown

Conclusion : Gaeji-Ka-Hwangki-Tang(桂枝加黃耆湯) has most effect on this case. So, We need to study combination Astragali Radix(黃耆) with Glycyrrhizae Radix(甘草)and the efficacy of herbs belonged to leguminosae

Key Words : Astragali Radix, Atopic dermatitis

*교신저자: 이남정, 경기 군포시 산본2동 1061-1 사암아침한의원. Kyo-Li, Jochiwon-eup, Yeongi-gun, Chungchungnamdo, Korea2 Macha 2-Li Health center, Buk-myeon

서 론

아토피피부염은 소양감과 피부건조를 주증상으로 하는 만성 재발성 습진 질환으로 알레르기비염, 기관지 천식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1]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 환경적, 약리적, 심리적, 면역학적 요인, 피부장벽의 문제 등 여러 기전에 의해 발생한다.[2]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나이와 질병의 경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3], 습진병변은 급성기에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진물, 딱지, 수포, 구진, 홍반성 판 등의 양상을 보이며 아급성기에는 긁은 상처, 홍반성 혹은 비늘이 덮인 구진과 판이 발생하며 만성기에는 태선화, 색소침착, 굵은 상처 등이 주로 나타난다.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목표는 크게 악화요인의 제거, 피부장벽기능의 호전, 염증의 완화, 그리고 이차감염의 예방이다.[2] 서양의학에서는 스테로이드제, cyclosporin, 국소 calcium inhibtor,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자외선 치료 등을 겸하고 있으나 장기 사용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대안을 연구중이다.

기존의 韓醫學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奶癬, 胎斂瘡, 胎癬, 胎熱, 乳癬 등의 범주로 보고 있고 이의 원인을 燥, 濕, 熱, 虛(氣虛, 血虛) 등으로 보고 치법은 祛風, 淸熱, 利濕, 益氣, 養血, 滋陰 등으로 삼고 있다.[4]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의거한 고법의학에서는 병적양상과 환자의 신체상태를 보고 일독과 소재와 치법을 파악하여 유취방에 기재된 200여가지의 처방중에 처방한다. 최근 고법의학에 근거하여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유취방 처방중 黃耆가 포함된 처방을 투여하여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었기에 이에 그 치료사례를 본 논문을 통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證 例

1. 환자 : 노 0 0
2. 성별/연령 : 남/8세
3. 주소증(主訴證) : 搔痒證
4. 발병일 : 생후 2개월부터
5. 현병력 : 생후 2개월부터 아토피 증상으로양약치료를 받아왔으며 2010년 5월경부터 심해져서 타 한의원(수원 소재)에서 한약치료 5개월 이후 소양증이 심해져서 10월경에 한약치료를 중단하였고 이후 분당에 소재한 타 한의원에 래원하여 침치료, 소아과에 래원하여 항히스만제 복용하였으나 별무효하여 본원에 래원함
6. 진단명 : 아토피
7. 가족력 : 별무
8. 과거력
9. 현재 복용중인 약물 : 항히스타민제 하루 2회(유시락스)
10. 문진사항 : 다음과 같다(Table 1)
11. 투약내역

1첩을 1일 분량으로 100cc씩 3회에 걸쳐 복용하게 하였다. 처방의 치료기간과 처방 및 구성약물,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1.

體刑	122cm, 26kg
食慾	한번에 먹는 양이 많다 / 허기를 참기가 힘들다 / 요즘 살이 빠지는 편이다.
消和	소화가 잘 된다.
口渴	하루에 마시는 모든 수분의 양은 모두 합쳐서 6~7컵 정도 된다 / 목이 마르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마신다 /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大便	2일에 1번 정도 보러 간다 / 대변을 보고 난 후 시원하다 / 대변을 며칠 못 봐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 대변이 단단하다.
小便	별무
汗出	땀이 잘 나지 않는다.
寒熱	추위를 못 참는다/ 몸이 더워도 신체 일부는 항상 차다/ 열이 나고 더웠다가 다시 열이 식고 추웠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자주 있다.
頭面, 耳鼻咽喉	코가 항상 찍찍하게 막혀있다.
胸部	소리지르고, 답답해하고, 목소리를 컨트롤 하지 못한다/ 허스키한 큰 목소리.
睡眠	잠을 충분히 못자면 매우 피곤하다 / 하품을 잘한다 아침에 일어난 이후에도 한참동안 몽롱하다
手足, 身體, 皮膚	손발이 차갑다(손, 발)/ 쥐가 잘 나는 편이다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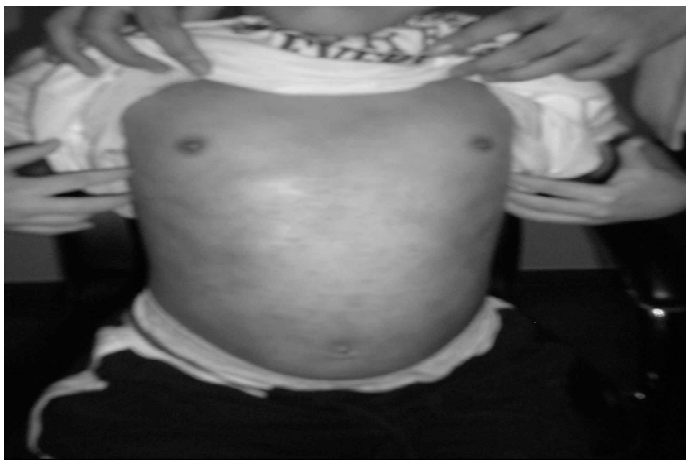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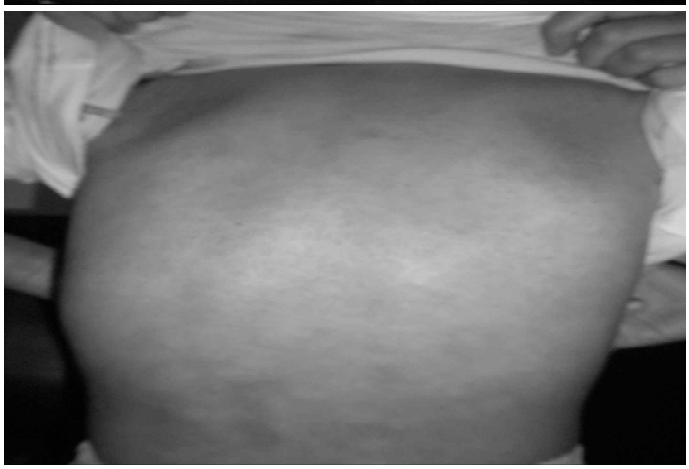
날짜	처방	경과
2011.07.05	桂枝加黃耆湯	표피과민성이 줄어들었고,행동이 차분해지고 소양감이 고통을 수반하지 않게 되었다. 코안도 시원해짐을 느꼈다.
2011.07.16	黃耆芍藥桂枝苦酒湯	계지가황기탕에 비해 호전반응이 적다.
2011.07.20	黃耆桂枝五物湯	전반적인 가려움은 줄었으나 대퇴는 가려워 긁어 진물나고 끈적거렸다.
2011.08.08	烏頭湯	발목과 무릎부분은 호전되었으나 천골, 후경부는 큰 호전이 없다. 음식자극에 의한 소양감은 여전히 있다.
2011.08.11	桂枝加黃耆湯	20분을 긁지않고 피아노 친 적이 처음이며, 얼굴빛이 좋아졌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내복을 벗게 되었고 반팔셔츠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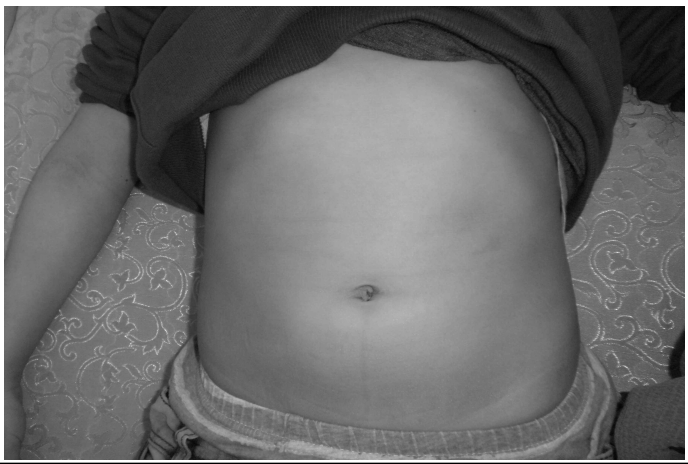
Table 3.

處方	一日 分量
桂枝加黃耆湯	大棗(Jujubae Fructus)8g 桂枝(Cinnamomi Ramulus) 芍藥(Paeoniae Radix Alba, Paeonia lactiflora Pallas) 生薑(Zingiberis Rhizoma Crudus)6g 甘草(Glycyrrhizae Radix,Glycyrrhiza uralensis FISCH) 黃芪(Astragali Radix,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4g
黃耆芍藥桂枝苦酒湯	黃芪(Astragali Radix,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10g 芍藥(Paeoniae Radix Alba, Paeonia lactiflora Pallas) 桂枝(Cinnamomi Ramulus)6g 苦酒40ml
黃耆桂枝五物湯	生薑(Zingiberis Rhizoma Crudus)12g 大棗(Jujubae Fructus)8g 黃芪(Astragali Radix,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芍藥(Paeoniae Radix Alba, Paeonia lactiflora Pallas) 桂枝(Cinnamomi Ramulus)6g
烏頭湯	麻黃(Ephedrae Herba) 芍藥(Paeoniae Radix Alba, Paeonia lactiflora Pallas) 黃芪(Astragali Radix,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甘草(Glycyrrhizae Radix,Glycyrrhiza uralensis FISCH)6g 烏頭(Aconitum carmichaeli Debeaux)5g 蜜 16g

Table 4. 치료경과

날짜	치료경과
2011.02월경 (처음 내원 당시)	

날짜	치료경과
	   

날짜	치료경과
2011년 08월 26일 복약후	 

考 察

아토피피부염은 심한 소양감과 특징적인 습진성 피부병변을 나타내는 만성재발성 피부질환으로 대개 유소아기에 시작하여 장기간 피부염이 지속되며 사춘기까지 약 90%는 자연치유되는 경향이 있으나 나머지 10%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수 있다[5].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는 소양감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고 피로가 증가하는 등의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도 자존감 저하와 자신감의 상실이 초래되어 일반 아동에 비하여 불안정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성이 높아지고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또래관계나 학습, 놀이, 운동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방해할수 있다[6].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의 목표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공급과 악화요인의 제거, 그리고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 등이다. 치료제로는 국소 steroid를 기본으로 국소 calcineurin inhibitor, 항히스타민제,

gamma-linolenic acid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자외선 치료, cyclosporine, interferon-gamma 등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은 중단시 증상의 재발과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학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유선, 내선, 胎癬, 태렴창, 습진, 습창 등에 해당되며, 風熱, 血虛生風, 脾胃氣虛, 濕熱, 肝腎陰虛, 熱毒 등이 주요 病因이 된다.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辨證施治를 기본으로 淸熱解毒, 健脾化濕, 養血潤膚, 祛風止痒, 活血化瘀 등 다양한 治法이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濕熱證이 나타나는 초기에는 攻法이, 후기에는 功瀉兼法이 多用된다.[7-12)]

고법의학은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기재된 처방중 200여가지의 처방 중 환자의 복진과 외증에 근거하여 처방을 선방하는 의학으로서 그 200여가지의 처방은 길익동동이 유취방13에 기재한 처방에 의한다. 고법의학에서는 피부병을 약징상의 水, 煩, 腫膿, 痰飮, 血症, 燥 등의 범주안에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黃耆는 水氣를 해결하는 약물로서 약징14에서는 黃耆 主治 肌表之水也. 故能治 黃汗 盜汗 皮水也. 라고 기재하고 있다.

黃耆는 荳科(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초목 및 동속근속식물의 뿌리이다. 이에 대하여는 神農本草經[15)]에 "主癰疽 久敗瘡 排膿止痛 大風癘疾 補虛 小兒百病"하는 상품으로 최초 언급된 이래에 補氣升揚, 固表止汗, 利水消腫의 효능을 지닌 대표적인 補氣藥의 하나로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黃耆의 주요성분은 polysaccharide와 saponin 그 외에 sucrose, 베타-sitosterol, calcosin, formonetin, 3-hydroxy-9, 10-dimethoxy-pterocarpen, 3-O-베타-D-glucopyranoside 등이 함유되어있다.

그동안 黃耆에 대하여는 黃耆의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증강효과, 黃耆 polysaccharide의 면역증강효과와 활성화된 탐식세포의 증가, 간과 비장에서의 alkaline RNase활성감소 등의 생체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었다. 또한 黃耆의 투여가 자연치사세포의 독성증가를 나타내며 黃耆 saponin이 cAMP의 축적과 항염 및 항고혈압작용을 나타내고, 만성간염환자에서의 망상내피세포의 탐식증가, 점막에서의 IgA, IgG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類聚方에서 黃耆가 들어간 처방은 桂枝加黃芪湯, 黃芪桂枝五物湯, 黃芪芍藥桂枝苦酒湯, 防己黃耆湯, 防己茯苓湯, 烏頭湯이 있으며 본 보고례에서는 桂枝加黃芪湯, 黃芪桂枝五物湯, 黃芪芍藥桂枝苦酒湯, 烏頭湯을 사용하였다. 方極[16)]에서는 桂枝加黃芪湯은 治桂枝湯證 而黃汗 或自汗 或盜汗者, 黃芪桂枝五物湯은 治桂枝湯證 而嘔 身體不仁 不急迫者, 黃芪芍藥桂枝苦酒湯은 治身體腫 發熱 汗出 沾衣 色正黃如蘗汁者. 烏頭湯은 治骨節疼痛 不可屈伸 若自汗 或盜汗 若腹絞痛者라고 기재되어있다.

본 환자는 코를 항상 훌쩍거리는등 비염 유사증상을 보였으며 비경검사상 비점막이 많이 헐어있었으며 황기 약독을 포함한 한약 투여 후 코가 시원해지고 점막의 상처가 복구되었으며 비염유사증세도 소실되었다. 저자는 코가 막혀서 킁킁거리며 코딱지가 잘 생기 등의 증상이 있으며 비경검사상 비점막이 많이 헐은 상태를 황기의 진단팁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코의 점막은 신체에서 외부의 세균이나 바

이러스, 진균 등에 다빈도로 노출되는 기관이며 면역력 저하로 인해 창상 치유가 잘 안되게 되면 비점막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비점막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점액분비를 일으켜 비염 유사증세가 발현되리라 추측되어진다.

상기 아토피 환자는 여러 병태 중에 水에 의한 肌表之水로 판단하였으며 類聚方에 기재된 처방 중 黃耆劑를 투여하여 제반 피부 증세를 깨끗이 소실시킬수 있었다. 상기 4처방 모두 환아의 증상에 유효하였으나. 가장 큰 호전을 보였던 것은 桂枝加黃芪湯이었다. 이는 황기와 같은 콩과식물에 속한 감초와의 배합 때문이라고 추측되어 지며, 추후에 아토피 치료에 있어 콩과식물들에 대한 연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結 論

1. 黃耆는 肌表之水를 치료하는 약물로서 피부질환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2. 黃耆를 선정하는 하나의 팁은 비경검사상 비점막의 만성적인 손상의 확인이며 수반하는 외증은 연중 지속되는 콧물, 코막힘, 코딱지 등이다.

3. 黃耆는 콩과 식물로서 항염, 항진균, 항바이러스, 면역기능 개선, IgA, IgG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

參考文獻

1. Eui Hyung Lee, Sang Eun Lee, Seung Hun Lee. 대한피부과학회지. 12(1) : 2010
2. 김문범 외. 아토피피부염에서의 피부관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9 : 47(5):531~538.
3. Williams HC, Clinical practice. Atopic dermatitis, Nengl J Med 2005 : 352, 2314-2324.
4. 손국호 외. 아토피피부염의 한의학적 변증에 대한 문헌적 고찰. 東西醫學. 2009; 34(4) : 15-24.
5.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편저. 피부과학. 제5판. 서울, 여문각, 2008 : 95, 170-174.
6. 권인수, 서영미.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가정관리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4호, 2009 : 401-408.
7. 가민 외. 중의피부과임상실천. 귀주과학출판사. 2002 : 202.
8. 범서강. 중서의결합치료피부병성병. 광동인민출판사 2005 : 188.
9. 장지례. 장지례피부병임상경험집요. 중국의약과기출판사. 2002 : 247-251.
10. 서삼문. 중국피부병비방전서. 과학기술문헌출판사. 2003 : 333-336.
11. 피선명 외. 피부병중의치료여방제.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97 :45-58.
12. 노석선. 원색피부과학. (주)아이비씨기획. 2006 : 499-501.
13. 吉益爲則. 類聚方.
14. 吉益爲則. 藥徵. 이정환, 정창현 옮김. 청홍. 2006.
15. 미상. 神農本草經.
16. 吉益爲則. 方極.
17. 송봉근 외. 黃耆가 면역세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13(2). 1998.